

Ἡ Ἰστορία τῆς Παλαιᾶς Διαθήκης Ἐκδόσεις 야곱과 라반의 창세기 29장부터 31장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18회기, 야곱과 라반, 창세기 29장부터 3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밧단아람에서의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9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집에서 브엘세바로 도망하여 자기 가족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 레베카의 형제 라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장, 즉 29장, 30장, 31장이 어떻게 도피로 표시되는지입니다. 29장의 경우,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를 피해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31장에서 그는 그곳에서 겪는 압제 때문에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 나은 마련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그것이 야곱의 경험에서 더욱 파괴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9장은 그가 밧단아람, 특히 하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화에서 그는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30장에서는 둘 사이에 피뎌기가 있습니다. 그 장에는 자녀의 증가와 소 떼와 양 떼의 증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장들을 이해하려면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31장에서 31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나는 베엘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신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기억하세요. 아시다시피 베엘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며 족장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나는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부은 베엘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가 돌을 자기 머리 밑이나 자기가 자려고 누웠던 머리 옆에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 그는 그것을 기둥, 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장소로 세웠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서원한 곳에서 이것은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가 베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자신과 재물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마치며 이제 이 땅을 떠나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따라서 이것이 28장에서 일어날 일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발전하기 시작할 개인적인, 어, 관계를 회상하는 첫 번째 경우를 성경에서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조상의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을 인식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경험을 시작하고 하란 마을의 어려운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장들을 살펴보면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됩니다. 누군가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란이라는 도시로 갈 예정입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를 갖게 되고 풍요로워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레베카가 다시 돌아와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은 속임수 위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사이의 태에서 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투쟁이 있고 레아와 라헬 사이에 경쟁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내에게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딸들과 그들의 아버지 라반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31장 32절의 평화 조약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출산의 긴장이 있었던 야곱,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달리, 우리는 야곱이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출산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그가 그 땅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꿈 28장에서 그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네가 돌아올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글썄요, 그의 첫 아내 레아가 20년 동안 7년 동안 일하고 두 번째 아내 라헬에게 샅을 지불하기 위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찾아낸 양떼를 지켜보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야곱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31장에서 라헬과 레아에게 말할 때 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제 점점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라반의 모든 장애물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6년 후에 다시 시작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 너희 아버지를 위해 일했다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제에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딸들에 관해 라반과 합의하고 계속 일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추가로 6년 동안 라반의 양 떼를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나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10은 아마도 완전함이나 온전함의 개념을 반영하는 숫자를 반영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를 대신하여 중재하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네 아버지가 말하기를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모든 양 떼가 점 있는 새끼를 낳았느니라

그가 줄무늬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모든 양 떼가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합의를 돌보고 계셨다는 근거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31장을 보시면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고 부지런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를 속임으로써 그를 학대했습니다.

41절에서 그가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점을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있었던 2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 문장에서 그는 자신이 돌보는 양과 염소가 야생 동물의 보살핌을 받는지 확인하고 라반을 위해 어떻게 부지런히 일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그는 임무를 수행했고 자기 임무가 수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1절로 돌아가서, 내가 14년 동안 당신의 2달러를 받고 6년 동안 당신의 품삯이나 나의 품삯을 10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고된 노동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감독을 받아 등장합니다.

그런 명성과 부를 가진 부자가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질투심이 너무 커서 떠나는 것이 좋을 때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는 항상 어려움과 실망, 위협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신실함에 실패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때때로 도덕성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가족을 뽑는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축복을 계속 부어 주시며, 그들의 죄악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그릇으로서 그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실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감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들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족장들에게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족장들에게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계획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은혜와 자비로 이 계획을 수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풍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읽으면 이 민족 그룹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의 수단이 될 것인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이것은 암시되어 있으며 구약성서에 예시되어 있으며,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29장, 30장, 31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사건을 살펴보면 얼마나 끔찍한 역기능 가족인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과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은 온갖 죄악된 계획과 속임수와 사악함과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내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을 사용하여 야곱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더 깊고 집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족장들의 삶에서 한 가지 경험이나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의 어떤 경험도 취하고 그것을 더 큰 이야기 이야기에서 분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사건, 의미, 의미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더 큰 이야기 이야기, 하나님의 더 높은 목적, 희망적인 현실, 하나님 계획의 미래 실현이라는 맥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틀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실패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수치심은 하나님의 결과로 버림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방식이라거나 그 계획을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으신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큰 틀에 넣지 않으면 온갖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약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다양한 도전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성령에 의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려는 선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족장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정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신실함과 근면을 강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자신을 보여주시고, 보여지기를 원하시며, 몇 번이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목적도 없고 수단도 없는 사건이 아니며, 소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신약성경 고린도 서신에서 말했듯이 그가 슬픔을 경험하면서도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기쁨의 영속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반은 29장에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밧단아람에 왔다가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장소로 갔던 아브라함의 종의 울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 우물이 있었고 거기서 그는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고 그의 여우에게도 물을 준 사람은 야곱의 것이 아니라 리브가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음, 이 경우에는 반전이 됩니다.

우물에서 돌을 굴러내고 라헬과 양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사람도 야곱입니다. 라헬도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야기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될 종류의 메아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러한 많은 암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계자를 두셨음을 보여주며, 그것은 25장의 태 사건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반전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행복한 환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14절에서 그가 그의 조카 야곱에 관해 선언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는 “너는 내 살과 피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긍정적인 결과, 행복한 관계로 이어지는 친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야곱에 있어서는 라반이 진정한 적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속이는 자 야곱이 반복적으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가 이전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족의 다툼 안에는 약속에 관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더 큰 위협이고 땅으로의 귀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맨스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은 18절에서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여기에 그의 제안이 있습니다. 야곱은 상업적인 방식으로 라헬을 구입하기 위해 제공할 부가 없었지만 관계에 기초하여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조잡한 구매가 아니라 오히려 신부값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최고의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딸 레이첼을 대신해 나는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칠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칠년이 며칠 같이 느껴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보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란의 전통은 큰 딸이 먼저 결혼하고 작은 딸은 나중에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혼인 잔치를 베풀고, 완성의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대접함으로써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적인 질문은 이 사람이 실제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도대체 왜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알코올 음료가 있을 것이며, 그는 술에 취했거나 약간 취한 다음 어두운 천막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잠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 구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레아와 결혼했고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침이 되어서야였습니다. 25절에서 라반은 그 관습을 설명하고 야곱과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이번 주 곧 혼인 잔치 주간이 지나면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그러나 너는 7년을 더 일해야 한다. 30절은 또 다른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는데, 라헬은 30장에서 자녀 출산의 중요성을 표현합니다. 1절에서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동생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목적은 자녀를 낳고 상속과 유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장한 아들들이 그녀를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미래 안전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31절에서, 그리고 다시 29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아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그녀의 태를 열어 그녀에게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이러한 질투와 경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0장에서

자녀를 늘리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 여종을 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레아와 그 여종 빌하의 경우라 더 정확히 말하면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아이를 낳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레아라더라. 나는 이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지역 민속, 민속 관습이 작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녀를 낳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0장 2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화를 내며 당신에게 아이를 주는 것은 내 권한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주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이러한 투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라헬이 말한 대로 내가 형과 크게 싸워 이긴 것은 빌하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레아에게는 이야기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될 여섯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 디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 실바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여덟 명의 아들이군요. 라헬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 한 명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 빌하에게는 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총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합치면 야곱에 따르면 이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최음제를 사용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최음제로 믿어졌던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맨드레이크입니다. 그리고 합환채 열매를 먹으면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된다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두 명의 여자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환채를 통해 야곱을 조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조종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시도합니다.

합환채는 제가 말했듯이 봄철에 황적색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합환채의 뿌리가 사람의 하반신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음제에 관해 제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자가 30장 24절에서 자신의 임신 출산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더하기 또는 더하기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24절에서 “여호와여 이는 여호와와 신실한 언약의 이름이요 그의 고유한 이름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쪽에서는 올바른 신학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양 떼를 어떻게 세우는 지에 관한 이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자녀의 추가로 나아가고 이제는 양 떼의 추가와 증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라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계속되는 이중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야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보세요. 이제 내 아내와 아이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27절에서 “자, 다시 거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점술을 통해 하나님을 그림 속으로 끌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술이란 일종의 기계적 수단을 통해 숨겨진 지식을 발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 주신 은혜로 인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아비멜렉은 각각의 경우에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총애를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약을 맺고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혈연, 연결, 교제에 의한 관계 때문에 그 라반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을 확대함으로 인해 이 상황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29절부터 30절까지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내가 당신을 위해 일했고 당신의 가축이 내 보살핌을 받아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너희가 가졌던 적던 것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집을 짓고, 내 양 떼를 치를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련될 방식은 두 사람 사이의 합의이며, 라반은 자신이

야곱에게 제안하거나 그들이 마련한 합의가 자신이 우위. 그럼 어떤 구성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4장의 아브라함과 소돔 왕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즉 아브라함이 추격하여 패배시킨 동방 연합군에 맞서 이끈 큰 승리의 전리품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소돔 왕인 너로 인해 가나안 왕처럼 부유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양 떼를 감독할 때에 내가 그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양과 모든 검은 어린 양과 점 있는 것과 점 있는 모든 염소를 제거하리라 하신 것을 염두에 두라.

그게 내 임금이 될 거예요. 글썄요, 라반은 그것에 동의한 다음 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을 양 떼로 보냅니다.

그는 특별히 묘사된 동물들을 제거한 다음, 자신의 양떼와 야곱에게 남겨진 양떼 사이에 3일 여행을 돕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종류의 교배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는 일은 또 다른 민속 관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나무에서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냅니다. 37절에서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가지의 밑에 있는 흰색 나무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나무껍질과 흰색, 나무껍질과 흰색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것을 물구유 위에 놓아서 자기가 소유한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발정기의 암컷이 올 때, 둘 사이에 짝짓기가 있게 하여 둘 사이에서 새끼를 낳게 하고, 그것들은 나뭇가지처럼 번갈아가며 올 것이다. 그러므로 번식을 통해 나오는 것은 특별히 묘사된 동물로서 야곱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즉 점 있는 동물, 점 있는 동물, 그 다음에는 검은 동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30장 43절에 보면, 이같이 그 사람이 심히 번성하여 양 떼와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두었느니라. 이것이 그가 축적한 모든 부의 요약입니다. 양 떼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대가족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합환채를 만드셨듯이 다시 이 민속 풍습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제한된 지식, 심지어 그들의 부를 확보하기 위해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까지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식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단기적인 목적이 아닌, 단축된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자비의 행위입니다. 이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출산과 재산의 큰 증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31장에서 목동들처럼 태도의 변화를 발견합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과의 싸움, 그리고 이삭의 부와 그랄 아비멜렉 왕의 목자들과의 싸움에서 .

거기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긴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목초지에는 한계가 있고 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 투쟁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31장 1절에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에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이더라. 2절에서 야곱은 자신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자신과 동행하여 그들이 알지 못했던 땅으로 가고,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를 받고 있음을 믿도록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부터 그들이 왜 가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전에 그를 속인 사람이 라반이었다는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몰래 빠져나가고, 도둑질하고, 라반을 속이려 할지라도 라반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라반과 그의 목자들의 잠재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 사람 라반을 속였다.

라반은 이 지역, 즉 아람에 살고 있으므로 그 연결로 인해 그들은 아람인으로 식별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도망간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아람어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나요? 21절에 보면, 그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하여 유브라데 강 곧 서쪽으로 건너 갈릴리 바다 북동쪽 길르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31장 10절에서 꿈을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는 이러한 꿈들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지정받은 자손과 약속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20장의 경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아비멜렉은 그의 아내에 관해 아내와 딸이 속인 것을 기억하지만 아비멜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반이 꿈을 꾸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24절에 나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꿈은 매우 중요하며,

말씀하시는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색깔 있는 것끼리 짝짓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업과 족장들의 삶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천사를 말하며 13절에서 그 천사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성들은 그들과 동행하겠다고 쉽게 확신합니다. 그들은 야곱과 함께 공모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야곱과 함께 가기로 합의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딸처럼 정당하고 정당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나그네처럼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유업인 아버지의 재산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난 일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개입이라고 해석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재물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그는 도망쳤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19절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을 감시할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반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속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드라빔들의 도둑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가신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신 조상신 이 당신이 가신을 소유할 경우 상속을 보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안일 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라반의 집안이 조상의 신들을 숭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가 레아와 라헬에게서 보았던 상속에 관한 논의 때문에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갖는 것이 자기 아버지에게 징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녀가 미래에 이 가신을 갖고 있는 한

,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라반의 딸이고 그들의 자녀인 레아와 라헬의 자녀가 그들의 아버지의 손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 수업에서 이 신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후반부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글쎄요, 나는 라반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에 어떻게 올바른 반응을 보이기로 선택했는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7일 동안 강제 행군한 후에 그를 따라잡았고 그는 도착했습니다. 26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아담과 하와와 뱀의 경우에 대해 동일한 질문이 제기되었던 동산을 약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아브라함을 학대한 것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 관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바로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같은 질문을 했는지 빨리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당신들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갔습니다. 글쎄요, 만약 둘 사이에 속임수가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라반에게 더 큰 사기꾼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데려갔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왜 몰래 도망쳐 나를 속였나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서 그는 상상의 잔치와 축하, 행복한 출발을 떠올리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글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가족에 대해 그토록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나에게서 너를 해칠 권한이 있다. 이제 이것이 야곱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이 두려워서 몰래 도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그것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는 야곱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0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내 신들을 도적질하였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야곱에 대한 비난을 더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몹시 화를 냅니다.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가 장막에 두루 다니며 이 드라빔들을 찾으러 가더니 제이콥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확인해 보세요. 나는 도둑질에 대해 결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라헬의 장막에 이르자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라헬은 안장가방에 가정의 신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안장에 앉아 있습니다. 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장가방에

들어갈 만큼 작았을 겁니다.

생리 중이라 일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상태를 고려하여 그는 안장 가방을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36절, 야곱은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범죄가 무엇입니까? 36절. 그러므로 그는 지난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 성취한 모든 일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평화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44절에서 라반이 언약을 맺자고 제안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평화 조약에 대한 두 증인이 있습니다. 첫째, 기둥으로 세워진 돌, 그리고 그 행사를 표시하는 돌무더기.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맹세를 하고, 이어서 언약의 희생의 식사를 합니다. 그걸 선택해 봅시다.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훔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형제 나훔의 하나님, 라반의 조상,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평화 협정에 어떤 위반이 있거나 어느 한쪽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근거로 한 맹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두려워하는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두려움은 대문자로 표시됩니다. 이전 구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2절,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만약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실제로 번역될 수 있다면 문자 그대로 아버지가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단순히 조상, 내 조상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을 경외하는 하나님.

자,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보다 앞선 것과 동격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누구시느냐?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이 경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경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인은 하나님이다. 그는 자신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효과, 즉 두려움을 불린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과 맺은 보호와 공급의 언약 관계에 얽매어 있으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받는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비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굉장한 느낌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감각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기꺼이 양보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예배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맹세를 읽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식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약의 의식을 확인하는 희생 동물의 식사가 있는 평화 조약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으니, 55절에서 이튿날 이른 아침에 라반이 그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떠나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제 다음 번 32장과 그 이후를 보면 또 다른 종류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싸우고 이제는 하나님과도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투쟁의 결과는 야곱의 성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나홀의 두 가지 사이에 행복한 화해의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과 에서 사이에도 행복한 화해가 있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업은 다음 수업인 19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18회, 야곱과 라반, 창세기 29장부터 31장입니다.